

제목: KSP 국내 공유세미나 개최

□ 기획재정부 · KDI는 7.15일(금) 오후,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「2010년도 KSP 국내 공유세미나」를 개최하여, 2010년도 KSP 정책자문사업 및 발전경험 모듈화사업의 성과를 공유함

○ 이번 세미나에는 임종룡 제1차관, 현오석 KDI 원장, 권오규 前부총리를 비롯해 주요 외교사절*,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등 250여명이 참석해 KSP 성공 사례 및 향후 발전방향 등을 논의함

* Federico Morchio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, Marcela Lopez-bravo 주한 페루 대사, Vitali Fen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 등

□ 2010년에는 KSP 지원대상국을 크게 확대하여 총 16개국과 “양자간 정책자문”을 실시하였고, 한국의 발전경험을 사례연구 형태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“발전경험 모듈화 사업”도 개시

○ 상대국 수요, 경험 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16개국을 대상으로 정책자문 사업을 실시하였으며*,

* 이번 세미나에서는 총 15개국의 컨설팅 결과에 대한 발표세션을 가짐

- 특히 베트남, 인도네시아, 우즈베키스탄, 캄보디아를 중점지원국으로 선정하여 다양한 분야의 포괄컨설팅을 제공

○ 또한 수출자유지역, 중소기업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제도 등 개도국 수요가 높은 주제를 중심으로 20개의 발전경험 콘텐츠를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정리*

* 추진계획: ('10년)20개→ ('11년)40개→ ('12년)40개 (ODA 선진화 방안, '10.10월)

- 이러한 KSP 정책자문을 통해 몽골, 도미니카(공) 등 대상국의 정책, 제도 등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등 KSP 사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 **【첨부 참고】**

- 임종룡 차관은 축사를 통해 KSP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하고, 베트남 기획투자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편지를 소개하면서 성공적으로 추진된 KSP 사업에 대한 뿌듯한 감정을 표현함

- 향후 KSP 발전방향으로 개도국의 다양한 수요를 적시에 수용하는 “유연성”, 여타 ODA 사업과의 연계 등 정책자문의 파급효과를 높이는 “촉매 역할”,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“포용성과 지속 가능성” 등 세 가지를 제시하며,

- 지식이 성장의 동력이 되는 21세기에, KSP는 문화 한류를 “지식 한류”로 확산시키는 선봉장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언급

- 현오석 원장 또한 사업 관계자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, 한국은 단기간 내에 원조수혜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전환된 국가로, KSP는 우리의 발전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모범 사례라고 강조함

- 향후 기획재정부와 KDI는 KSP의 성과를 국내외 관계자와 적극 공유하고, 현재 추진 중인 2011년도 KSP 사업*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, 개도국의 KSP 수요 급증에 대응하여 사업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

* 금년에는 ①25개국을 대상으로 양자정책자문, ②40개의 개발경험 콘텐츠 구축, ③7개 내외의 국제기구와의 공동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있음

○ 또한 KSP를 한국형 정책자문의 모범 사례로서 국제 경쟁력을 갖춘 핵심브랜드 사업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

☞ **【별첨 1】** KSP 국내 공유세미나 개요 및 세부프로그램 안내문

【도미니카(공) - “체계적 사업 추진을 통해 정책자문 성과를 제고”】

1. 추진 배경

- Leonel Fernandez 대통령 및 Eddy Martinez 수출투자청 장관이 방한하여(각각 '06년, '07년) 우리 개발경험 공유를 공식 요청
 - 이에 따라, 우리 정부는 '08년부터 현재까지 도미니카 공화국을 KSP 대상국으로 선정하고 정책자문을 추진하고 있음

2. 추진 상 특징: “다년간 특정 주제의 선택과 집중”

- 도미니카 측에서 관심이 높았던 “수출 진흥” 관련 정책자문을 3개년에 걸쳐 체계적으로 수행하였음
 - 구체적으로 수출 진흥과 관련한 포괄적 정책자문('08), 전력체계 개선 등 수출 인프라 구축('09), 수출금융 등 수출신용기구 설립('10)과 관련된 정책자문을 수행하였고,
 - 각각의 해마다 고위인사 수요조사 및 세부실태조사 등을 통해 세부 주제를 도출하고, 보고회, 세미나 및 고위급 정책대화를 실시하여 정책자문결과를 확산시킴

3. 정책자문내용 및 실제 적용

- 협의회/제도의 설립 및 운영, 법령 개정 등 다양한 형태의 정책자문이 도미니카 정부 및 국회의 활동에 실제로 반영되고 있음

- 특히, KSP 정책자문 결과가 EDCF* 등 우리의 여타 ODA 사업과 연계되고,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등의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정책자문의 효과성이 제고되고, 경제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

* EDCF(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, 대외경제협력기금)
: 개도국 발전지원 및 경제협력을 위한 長期低利의 차관용자사업

< KSP 정책자문내용과 도미니카(공)의 실제 반영 >

정책자문내용	실제 적용
① 공공/민간부분이 참여한 “수출·투자 협의회” 개최를 제안 - 한국의 월례 수출진흥회 경험에 기초	⇒ • 대통령 및 장관이 주재하는 “수출·투자 진흥협의회”를 다수 개최
② 국제무역네트워크, 정보수집능력 강화 - 수출 확대를 위한 해외시장 정보 수집 능력 강화가 필요 - KOTRA, 한국 종합상사제도 등 소개	⇒ • 종합상사 형태의 “Global Trading Company” 설립이 진행 중 • 특히, 수출투자청은 EDCF 지원을 받아 종합무역센터 설립을 추진
③ 수출입은행(DEXIM) 설립 제안 - 1단계로 현재 BNVP*의 수출금융 역할을 강화하고 * National Bank of Housing and Production - 2단계로 수출입은행 설립을 제안	⇒ • Fernandez 대통령은 BNVP의 수출입은행 전환을 직접 지시하고, 법률 개정안을 제출 • 후속 조치로 KSP 초청연수, 세미나 등을 통해 수은 운영 경험을 공유
④ 도미니카 공화국 전력체계 개선 - 전력관련 전담기관 설립이 필요 - 전력손실 방지 등의 대책이 필요	⇒ • 국가에너지위원회 등은 전력산업을 전담하는 기관 설립을 준비 중 • 도전(power theft)을 공식적으로 불법화 • 전력손실 방지를 위해 한국전력과 배선선로 사업(노후 설비 교체 등) 계약(4,600만불)을 체결
⑤ 국가발전전략 수립 -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5개년 발전계획 수립 등을 제안하고, 정기 점검이 필요함을 자문	⇒ • 헌법 개정을 통해 정책적 우선순위 등을 반영한 국가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됨

【몽골 - “명확한 수요 파악을 통해 정책자문 성과를 제고”】

1. 추진 배경

□ 몽골 정부는 사회기반시설 필요성 및 투자 효율성 향상, 부분 예금보험제도 도입 등을 위해 우리 측에 이와 관련된 경험의 공유를 공식 요청하였고,

○ 이에 따라, 기획재정부는 몽골을 2010년 KSP 사업 대상국으로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함*

* 2010년 사업성과에 기초하여, 2011년에는 몽골을 중점지원국으로 선정하여 3년간 정책 전반에 걸친 포괄컨설팅을 실시할 계획

2. 추진 상 특징: “수원국의 수요를 명확하게 파악”

□ (주제 선정) 몽골이 송부한 KSP 수요조사서, 몽골 재무부, 중앙은행 등 고위인사 수요조사, 현지 세부실태조사 등을 통해 정책자문을 위한 주제의 내용과 범위를 다양하고 심도 있게 검토

○ 이에 따라, 공공투자평가제도(예비타당성조사 등), PPP*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, 예금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 연구 등 3가지 정책자문 주제를 도출

* PPP(Private-Public Partnership, 민관협력파트너십)

□ (보고회, 세미나 등) 2차례에 걸쳐 총 40여명의 몽골 관계자*가 방한하여 세미나, 교육프로그램 등에 참여하여 한국의 경험을 교육받고, S, Bayartsogt 재무부 장관 등에 정책자문결과를 보고

* 재무부, 국가개발혁신위원회, 국가재산관리위원회, 중앙은행, 금융감독원 등

3. 정책자문내용 및 실제 적용

- 우리 측 경험에 기초하고 몽골의 여건을 고려한 정책자문이 몽골 정부와 의회의 의사결정 및 실제 정책에 반영되고 있으며,
 - 특히, 정책자문 결과가 법률 제정, 기관 설립의 형태로 나타나면서 역량배양 등 향후 추가 정책자문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

< KSP 정책자문내용과 몽골의 실제 반영 >

정책자문내용	실제 적용
① 예비타당성제도 도입 및 운영 - 정교한 운영지침이 필요 - 관계 부처/기관간 명확한 업무 분장과 역할 분담이 요구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가개발혁신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제도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 등을 마련 중 • 또한, 명확한 업무 분담을 위해 예비타당성을 담당하는 별도 기관 설립을 준비 중
②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- 민간투자법 이행을 위한 시행령 및 규정 마련이 필요 -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여타 법률 및 정책 정비가 요구 - 각 기관의 역할을 분담하여 기관간 상호작용을 도모해야 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가재산관리위원회는 세부 시행령 및 규정 마련을 위해 한국의 관련 시행령 및 규정을 번역 중 • 국가재정을 담당하는 부처/기관간 정기적 회의를 통해 상호작용을 활성화
③ 부분예금보험제도 도입 - 중장기적으로 예금보험기금 통합 운용 등이 필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몽골은행, 재무부 등이 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부분예금보호 제도를 위한 법안을 준비하고, 몽골 의회에 제출